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1. 멘탈 관리 가이드

- 1) 수능은 성급한 사람을 변별하는 시험이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 2) 긴장감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너는 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 3) 실력의 80% 정도만 발휘해도 선방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 4) 그간 쌓아온 자신의 실력을 믿어라. 두려워 하지 마라.
- 5) 적어도 시험장에서 1컷은 80점이다. 어렵다고 정신줄 놓지 마라.

2. 실전 운영 가이드

1) 차분하게 독해하라.

시험장에서는 급해지기 마련이다.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 평소의 0.8배속 정도로 읽는다 생각하자. 특히 글의 서두나,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문장의 경우 의식적으로 더 속도를 늦춘다.

2) 중간중간 정리하라

일단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보가 정리되어야 한다. 잘 안 되면 중간중간 멈춰서 정보를 정리하도록 한다. 최대한 머릿속으로 정리하되, 도저히 안 되면 표시나 메모의 도움을 받는다.

3) 분류하며 전진하라

짹짹함이 남는 문제(☆), 아예 모르겠는 문제(☆☆), 선지 다섯 개를 다 안 보고 정답을 확신한 문제(□)에는 표시를 남겨둔다. 요즘 시험 기조에서는 잘 '푸는' 사람보다, 잘 '버리는' 사람이 잘 보는 경우가 더 많다.

4) 꼼꼼하게 확인하라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때는, 세부적인 단어에 매몰되어 대충 판단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전체 속의 부분을 보도록 한다. 꼼꼼하게 확인한 뒤, 근거에 해당하는 문장에 밑줄을 치도록 한다.

5) 계획대로 운영하라.

그동안 수립해온 자신의 원칙에 기대 시험을 운영하자. 원칙을 안 지키면 성적도 제멋대로 나오기 마련이다. 특히 영역별 시간 가이드 라인을 엄수하자. 가령, 고전소설에서 최대 10분을 쓰기로 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10분 넘게 붙들고 있지 않는다. 일단 넘기고, 돌아와서 풀어야 한다. 설사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그래야 시험 전반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3. 행동강령/풀이 순서&시간 운용 계획 정리

- 올해 틀렸던/헛갈렸던 문제들 쪽 훑어보며 본인이 가진 악습관 총정리
- 행동강령 적는 법: A이면(A일 때) B하자.

[독서]
세부 내용 나열되면, 한 문장씩 이해해보되 핵심적인 흐름으로 요약하고 세부는 표시·메모로 처리하자.

- 풀이 순서/시간 계획 대강의 가이드 라인 정리
- 평소 본인의 '악습관' 中 가장 중요한 3개 정리 → 의식하며 풀기

4. 예열 지문 활용

문학은 전날 저녁에 읽어보시고,
독서는 당일 아침에 차분히 읽어보세요.

문제는 따로 실어두지 않았습니다.
지문 위주로 차근차근 읽고, 이해해보며 예열합시다.

1. 사회_경쟁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2. 과학_점성

어떤 물체가 점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점탄성이란 무엇일까? 점탄성을 이해하기 위해 점성을 가진 물체와 탄성을 가진 물체의 특징을 알아보자. 용수철에 힘을 가하여 잡아당기면 용수철은 즉각적으로 늘어나며 용수철에 가한 힘을 제거하면 바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데, 이는 용수철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용수철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즉각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꿀을 평평한 판 위에 올려놓으면 꿀은 중력에 의해 서서히 흐르는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는 꿀이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꿀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물체가 힘과 변형의 관계에서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즉각성'과 점성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지연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점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물체를 점탄성체라 한다. 이러한 점탄성을 잘 보여 주는 물리적 현상으로 응력 완화와 크리프를 들 수 있다. 응력 완화는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크리프는 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이다.

응력 완화를 이해하기 위해 고무줄에 힘을 주어 특정 길이만큼 당긴 후 이 길이를 유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외부에서 힘을 주면 고무줄은 즉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힘과 변형의 관계가 탄성의 특성인 '즉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늘어난 고무줄의 길이를 그대로 고정해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겹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고무줄의 분자들의 배열 구조가 점차 변하며 응력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이는 점성의 특성인 '시간 지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점탄성체의 변형이 그대로 유지될 때, 응력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이 응력 완화이다.

이제는 고무줄에 추를 매달아 고무줄이 일정한 응력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고무줄은 순간적으로 일정 길이만큼 늘어난다. 이는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성체와 같이 분자들의 위치가 점차 변하며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크리프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유리창 유리의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3. 인문_이기론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고전소설_정을선전

익일에 유모를 따라 한가지로 소저의 빈소에 이르러는 유모가 먼저 들어가 이르되,

“소저야, 정 시랑 상공이 오셨나이다.”

소저가 대 왈,

“어미는 어찌 저런 말을 하나뇨? 시랑이 나를 버렸거든 다시 오기 만무하니라.”

유모가 다시 이르되,

“내 어찌 소저에게 허언을 하리잇고? 지금 밖에 오신 상공이 곧 정 시랑이시니 들어오시라 하리잇가?”

소저가 이르되, “정 시랑이신지 분명히 옳으냐?”

유모 왈, “어찌 거짓말을 하리잇고?”

하고 나와 이대로 고한대, 어사가 친히 문 밖에서 소리하여 왈,

“생이 곧 정을선이니 나의 어리석음으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저렇듯 원혼(冤魂)이 되었으니, 그 외 다른 말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잇고. 을선이 곧 황명(皇命)을 받자와 이곳에 와서 부인의 애매함을 깨닫사오니, 백골이나 보고 이곳에서 한가지로 죽어 부인의 각골지원(刻骨之冤)을 위로코자 하나니, 부인의 명백한 혼령은 용렬한 을선의 죄를 사(赦)하시면 잠깐 뵈옵고 위로함을 바라나이다.”

말 끝에 크게 우니,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정 시랑이 이곳에 오시기 만무하니 어디서 과객이 와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은 몸을 이렇듯 조르나뇨? 부질없이 조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는 소리가 애절(哀切)하여 원근에 사무치는지라. 유모가 수차 타이르되, 듣지 않으니, 시랑이 유모를 대하여 왈,

“내가 이렇듯 말하되 소저 듣지 아니하니 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들어가 보리라.”

유모가 말려 왈,

“그러하면 좋지 아님이 있을지라. 깊이 생각하소서.”

어사가 생각하되, ‘이는 철천지원(徹天之冤)이니 범연히 보지 못하리라’하고, 황급히 생각하고 즉시 익주자사에게 관자(關子)하되, ‘익주 순무어사(巡撫御使) 정을선은 자사에게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수일 내로 유 승상 부중(府中) 녹림원상(綠林苑上)으로 대령하라.’

하니, 익주자사가 관자를 보고 황황히 예를 갖추어 녹림원상으로 오니, 어사가 그늘에 앉아 민간(民間) 사정을 묻고 왈,

“내 전일에 유 승상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있더니 마침 이리 지나다가 유모를 만나 그동안 사연을 자세히 들으니, 그 소저가 별세한 지 삼 년이로되 이리이리하오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이러므로 그 원혼을 위로코자 하니 자사는 나를 위하여 의혹을 풀게 하라.”

자사가 듣기를 다 마치매 소저 빈소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하길,

“이는 곧 정 상공일시 분명하고 나는 이 고을 자사옵더니, 정 어사의 분부를 들어 아뢰옵나니 존위(尊威)하신 신령은 살피소서.”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아무리 유명(幽明)이 다르나 남녀 분명하거늘 어찌 외인(外人)을 만나리오? 아무리 분명한 정 사랑이라 하되 내 어찌 곧이 들으리오?”

어사가 하릴없어 이 연유를 천자에게 주(奏)한대, 상이 들으시고 애처롭게 여기서 원혼에게 벼슬을 하사하여 충렬부인을 봉하시고 직첩과 교지(教旨)를 내리시니, 언관(言官)이 밤낮으로 내려와 소저 빈소 방문 앞에서 교지를 자세히 읽으니,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아버를 모르고 님군을 모르시오? 교지를 내려 너의 원혼을 깨닫게 하노라. 정을선의 상소를 보니 너의 참혹한 말을 어찌 다 헤아리리오? 너를 위하여 조서(詔書)를 내리나니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조서를 거역한즉 역명을 면치 못하리라.’

하였더라. 소저가 듣기를 다하며 그제야 유모를 불러 왈,

“천은이 망극하사 아녀자의 혼백을 위로하시고 또 가부(家夫)가 틀림없는 줄을 밝히시니 황은이 태산 같도다.”

인하여 사랑을 청하여 들어오라 하거늘, 어사가 유모를 따라 들어가 보니, 좌우 창호(窓戶)가 겹겹이 닫혔거늘, 어사가 좌우로 살피나 티끌이 자욱하여 인귀(人鬼)를 분변치 못할지라. 마음에 비창(悲愴)하여 이불을 들고 보니 비록 살은 썩지 않았으나 시신이 뼈만 남은지라. 어사가 울며 왈,

“남자야, 나를 보면 능히 알소냐?”

그 소저가 공중으로서 대답하되,

“첩의 용납지 못할 죄를 사하시고 천 리 원정에 오시니 아무리 백골인들 어찌 감격치 않으리오? 첩이 박명한 죄인으로 상공의 하해 같은 인덕을 입사와 외람하온 직첩을 받자오니 어찌 감은치 않으리잇가?”

어사 왈, “어찌하면 남자가 다시 살아날꼬?”

소저가 답 왈,

“첩을 살리려 하시거든 금성산 옥륜동을 찾아가 금성진인을 보고 약을 구하여 오시면 첩이 회생하려니와 상공이 어찌 가 구하여 오심을 바라리잇고?”

어사가 기뻐 즉시 유모를 분부하여 ‘행장을 차리라’하여, 유모 부처(夫妻)를 데리고 길에 올라 여러 날 만에 옥륜동에 이르러 기험(崎險)한 산천을 넘어 도관(道觀)을 찾으되, 운무가 자욱하여 능히 찾을 길이 없는지라.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관자: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던 공문서.

교지: 임명, 해임 등 인사에 관한 임금의 명령.

{주제}

유추연의 계모 노씨와 정을선의 정렬부인 조씨로 인해 발생한 가정의 위기와 권선징악

{전체 줄거리}

정 승상의 아들 을선은 유 승상의 딸인 추연을 보고 상사병이 든다. 정씨 집안의 청혼으로 두 사람은 혼약을 하게 되는데, 계모 노씨가 추연을 시기하여 사촌 오빠를 시켜 추연을 모함한다. 을선이 떠나고 억울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게 된 추연은 혼령이 되어 배회하고, 추연이 살던 익주는 폐촌이 된다. 을선은 추연의 유모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추연의 혼령을 만나 추연을 회생시킨다. 추연은 충렬부인이 되어 을선의 사랑을 받으니, 을선의 또 다른 부인이자 초왕의 딸인 정렬부인 조씨가 이를 시기한다. 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이 남장한 시비를 보내어 충렬부인을 오해받게 하니 시어머니가 충렬부인을 죽이려 한다. 시비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충렬부인은 을선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것을 본 을선이 집에 돌아와 진상을 밝혀내고 정렬부인 조씨를 처벌한다. 을선은 충렬부인과 아들을 구한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5. 고전시가_봉산곡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삼신산 제일봉이 여섯 자라 머리*에 벌인 듯
 붉은 놀, 흰 구름에 곳곳이 그늘이요
 유리 같은 온갖 경치 빈 땅에 깔렸으니
 용문(龍門)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여덟 폭 돌병풍을 옥난간에 두른 듯
 맑은 모래 흰 돌이 굽이굽이 경치로다
 그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구암이 물을 굽혀 천백 척 솟아올라
 구름 위로 우뚝 솟아 하늘을 괴었으니
 어와, 경천대야, 네 이름이 과연 헛된 것 아니로다
 (중략)

시비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늑자더니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
 상주 십이월에 심양* 가라 부르시니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임금 은혜 감격하여 행장을 바삐 챙기니
 삼 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 겸하였네
 남쪽의 더운 땅도 출기가 이렇거든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 계신 데야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임 생각하니
 이국(異國)의 겨울 달을 뉘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 그리 겪으신가
 높은 언덕에 뺨은 칙이 삼 년이 되었구나*
 굴욕이 이러한데 풀은 무릎 언제 펴까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 신하 되었으니
 삼백 년 예악 문물 어디로 갔단 말고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라*
 태평 시절 막히고 찬란한 문물 사라지니
 동해 물 어찌 퍼 올려 이 굴욕 씻을런가
 오나라 궁궐에 섰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다니*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고금의 도리인데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 입었으니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겠는가

- 채득기, 「봉산곡」 -

*여섯 자라 머리: 발해 동쪽 바다에 떠 있는 다섯 선산을 떠받치고 있
 다는 여섯 마리 큰 자라의 머리.
 *심양: 선양. 지금의 요령성 성도. 북경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청나라가
 도읍으로 삼은 곳.
 *높은 ~ 되었구나: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나라에 굴욕을 당한 지 삼
 년이 되었음을 나타낸 구절임.
 *오늘날 ~ 관주빈이라: '관주빈'은 중국에 사신으로 간다는 말. '현재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전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라는 뜻임.
 *오나라 ~ 매다니: 섰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맞보면서 복수를 다짐한다
 는 '와신상담'을 가리킴.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 말임.

{해제}

이 작품은 인조 16년(1638)에 창작된 가사로 병자호란 이후 봉
 립 대군과 소현 세자를 호종하여 심양으로 가게 되자, 은거하
 던 경천대를 떠나며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
 고 있다. 자신이 은거했던 경천대(자천대) 부근의 풍경을 예찬
 하는 부분과 왕명을 받은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하
 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천대별곡'이라는 이름으로
 도 알려져 있다.

{주제}

임금의 명을 받아 떠나는 신하의 다짐과 은거하던 자연을 떠나
 는 아쉬움

{구성}

- 서사: 옥주봉, 경천대에 인사를 전하며 처음 이곳에 은거하던
 때를 떠올림.
- 본사 1: 버린 백성 되어 은거하며 살면서 경천대 주변의 아름
 다운 경치를 완상함. (중략)
- 본사 2: 임금의 명을 받아 행장을 챙기며, 임금의 은혜를 갚
 겠다는 다짐을 함.
- 결사: 심양으로 떠나며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함.

6. 고전시가_단가육장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올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제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랴시고
두어라 우로(雨露)*곤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제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제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제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제6장>

- 이신의, 「단가육장」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로: 비와 이슬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비비: 날아다니는 모습을 의미하는 의태어.

*공량: 건축물의 공간에 엮는 보.

{해제}

이 작품은 귀양살이의 고달픔과 임금에 대한 충정을 형상화한 연시조이다. 작가는 인목 대비의 폐위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로 유배를 떠난다. 이때의 고달픔을 제비나 명월 등의 자연물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함없는 충정도 표현하고 있다.

{주제}

귀양살이의 고달픔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구성}

- 제1장: 장부로서 할 일에 대한 천명
- 제2장: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인재 복귀에 대한 희망
- 제3장: 귀양살이의 처량한 신세 한탄
- 제4장: 귀양살이의 시름
- 제5장: 귀양살이의 외로움
- 제6장: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모의고사 이후 과제

- 1) 타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채점한다. (답을 알 수 없게끔)
-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나만의 해설지를 만든다.
 - 지문의 문장별 사고 과정
 - 글 전체 내용 요약/정리
 - 각 선지의 정오 해설
- 3) 해설지에 확신이 들면 답을 확인한다.
- 4) 틀린 문제&시간이 걸린 문제는 왜 그랬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단과 수강생은 분석한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 해설 강의 이후 1:1 클리닉 레포트를 드립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단과 수강생&
 (카톡 오픈 프로필 검색: 예성국어 for 2025)
https://open.kakao.com/me/YS_2025



만월 개강 안내

9모 해설 강의 이후 2주 뒤(9/21~)에 저의 파이널 강의, '만월'이 개강합니다. 제가 직접 한수/상상 모의고사 오프라인 콘텐츠 중 우수 회차를 선별하여 해설합니다.

단과 수강생은 수업 외적으로도, 온/오프라인 1:1 클리닉을 운영하며 **개인별 맞춤 지도**를 진행합니다. 각 개인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꼭 맞는 학습 방향, 커리큘럼을 설정해드립니다.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주시면 됩니다.

(카톡 오픈 프로필 검색: 예성국어 for 2025)
https://open.kakao.com/me/YS_2025

